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 역량 강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탄력'

장수군,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선정 도비 10억원 확보

장수군이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인구감소로 위기에 놓여있는 시·군이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의 30% 내외에서 전라북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물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수입지에 공급해 청년, 귀농·귀촌인 등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장수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장

수 지역수요 맞춤형' 120호, '장계 마을정비형' 140호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1월 전라북도에 신청한 사업이며, 내년도도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해 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선정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군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문화키움축제' 추진으로 동아리 단체 활성화 꾀해

무주군이 무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키움축제로 동아리 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 컨텐츠를 개발해 향후 무주읍 일원에 들어설 반다키움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일 무주군 국민체육센터 다목적홀에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플라마켓 운영과 동아리 공연, 전시 체험 행사인 '문화키움축제' 문화서비스 행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지원사

업의 성과 공유와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로 다짐했다.

이에 반다문화동아리 33개 단체를 비롯한 지역 봉사단, 코디네이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문객에게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활동의 전시·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각각의 동아리가 나서 빛 두드림 난타, 통기타, 고고장구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군은 향후 마련될 '반다키움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관리와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연초부터 '반다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500여명 참석 유공자 표창·가족운동회 등 진행

무주군에 정착한 아름다운 삶을 꾸리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참여한 어울림 화합한마당 잔치가 성대하게 개최됐다.

지난 3일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무주군 다문화가족 어울림 화합한마당 행사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500여명이 참여해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무주가족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레인보우밴드의 공연과 함께 필리핀 전통춤으로 장식한 식전 초청 공연으로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의 이

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화합한마당 행사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무주정착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장진원 가족센터장의 개회사와 황인홍 군수 격려사, 이해양 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의 축사, 가족운동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무주예체문화관 1층 로비와 광장에서는 풍미를 활용한 방죽면 만들기(한국), 베트남의 크리스마스, 필리핀의 핸드폰 거치대 만들기 등 체험부

스가 운영돼 각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하는 운동회(에어바운스 활용한 활동, 줄다리기) 등으로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황인홍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마나먼 타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다문화가족들이 무주에 정착하면서 아름답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다"며 "어울림 화합한마당 잔치를 통해 더욱 값지고 풍성한 삶을 개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격려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문화원에서는 지난 3일 '제34회 문화가족의 날' 행사를 갖고 문화의 보폭을 넓히면서 더욱 알찬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무주군, '제34회 문화가족의 날' 행사 가져

무주문화원에서는 지난 3일 '제34회 문화가족의 날' 행사를 갖고 문화의 보폭을 넓히면서 더욱 알찬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날 무주문화원은 무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무주문화원 회원 및 지역 문화 마련했다.

문화가족의 날 행사는 문화원 회원의 소속감 증진과 자체적인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의 기반과 계기를 만들어 내·외에 무주문화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는 맹감상 무주문화원장의 개회사와 황인홍 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앞서 식전행사로 칼림바 공연과 해금, 통기타 공연 등 문화공연으로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최북미술관 1층에서는 보타니컬, 수목화, 레진플루이드아트, 재봉틀 업사이클링, 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

분야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발표한 작품들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무주 문화예술 창달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문화 도시 구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문화유공자에 대한 무주군수상을 비롯한 무주군의회 의장상, 무주문화원상이 주어졌다.

무주문화원 맹감상 원장은 대회사에서 "군민들이 문화학교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 문화학교 수강생과 문화관계자들이 지역 전통문화의 개발과 보존에 앞장서면서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축사를 통해 "문화가족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무주군의 문화도시로 이끌어 가는데 미중물이 되고 있다"며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우수제안 공모

진안군은 5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발굴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5일부터 30일까지 '진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우수제안 공모전'을 갖고 진안군 특성에 맞는 지방 소멸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책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공모 분야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일자리·경제, △교육·보육, △보건의료 확충, △입주정책 등 진안군 인구정책 전반이며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활용처에 대한 공모도 진행한다.

공모대상은 진안군민은 물론 진안군 인구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가 가능하며 이메

일(jin32@korea.kr)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및 위원회에서 실행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심사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수상자에게는 최우수 100만원(1명), 우수 70만원(1명), 장려 30만원(8명)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진안군청 누리집 공고/고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인구위기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소중한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 부귀면 지사협, 어르신 50가구 대상 특화사업 추진

진안군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영춘·장현우, 이하 지사협)는 관내 어르신 세대 50가구에 화장실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매트 설치를 완료했다.

부귀면 지사협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해당 가구에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했다. 이는 부귀면 지사협이 추진한 2022년 신규사업으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이 약해지고 근력이 줄어들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며, 특히 물기가 많은 화장실에서 자주 넘어져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어르신 세대를 선정해 지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앞두고 주민설명회 착수

무주군이 2023년도 무주읍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주민설명회에 착수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경제 분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100여년 전 만들어진 측량 성과로는 토지관리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군은 지난 1일 무주읍 내도리 굴천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8일 장백리 상장백 지구까지 5개 지구별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둔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과 절차, 경제설정 기준, 주민 협조사항등을 설명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최찬호 팀장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과 완벽한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농업기술센터, 품목 농업인연구회 신청·접수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가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23년도 품목농업인연구회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격요건은 장수군에 주소지를 둔 회원 20명 이상의 동일품목 또는 동일목적의 자발적 연구모임체로, 희망하는 자는 연구모임체를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받으며 등록이 확정되면 연구모임과 관련된 작품의 재배 기술교육과 우수농가 현장 컨설팅 등 연구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발적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2년에는 사과, 토마토 등 23개 품목, 39개 연구회 1,311명의 회원이 등록해 활동했으며 지난 3월을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20회의 기술교육과 현장교육을 추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